

탈교회화 현상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전략

최영균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소장

들어가는 말

1. 탈교회화 현상의 사회적 요인들

1.1. 신앙의 사사화

1.2. 세속화된 영성

1.3. 교회 내 불평등

2. 가톨릭교회의 전략

2.1. 교회의 사회적 공헌

2.2. 영성자본의 강화

2.3. 환대의 영성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의 성장 정체와 탈교회화는 근본적으로 세속화 현상의 탈종교회¹⁾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근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서구 문명의 토대이자, 사회

1) 이 글에서는 가톨릭교회의 탈교회화 현상을 일컬을 때 더 포괄적인 용어인 ‘탈종교회’라는 용어와 혼용해 쓴다.

의 질서와 규범을 규율하는 힘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서구 사회의 근대적 변동은 기존에 정립되었던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도전해 왔다.2) 전통 시대의 세계관과 사회의 의미체계를 설명하는 구조로서 교회의 위상은 약화되었고 사회의 에토스와 집단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또한 현대 사회의 합리화 또는 분업화 과정에서 종교는 하나의 분화된 체계로 축소되었다.3) 특히 세속화는 개인의 이성과 자유에 준거하여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종교와 관련되어 세 가지 특징을 각인했다. 첫째,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규율하는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둘째, 다원주의의 발흥과 더불어 교회가 개인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시장화의 맥락에 놓이게 되었다. 셋째, 교회의 기능이 정치와 공공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물론, 오늘날 탈종교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지역과 문화권에 따라 차이는 존재한다. 특히, 탈종교화 속도가 가파른 곳이 서양, 그리스도교, 산업사회로 계열화 될 수 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의하면, 그리스도교가 주류인 미국의 경우, 2070년에 이르면 그리스도인이 35%(2020년 현재는 64%)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전쟁, 사회 운동, 권위주의”와 같이 종교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교의 탈종교화 현상이 현재의 추세를 거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4) 한국 사회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의 성장세는 위상향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00년을 전후하여 하향세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 절반 이상(52%)이 종교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젊은 종교인은 지난 20년 사이 절반가량이 줄었다(20대 종교인 2004년 45% → 2021년 21%, 30대는 2004년 49% → 2021년 30%).5)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은 세속화라는 영속주의적 흐름 속에서도 다채롭고 복잡한

2)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서구 그리스도교의 내부 분열과 여기서 파생된 전쟁들이 발생했고 계몽주의, 종교비판과 철학적 무신론의 부상 시기를 거쳐, 이제는 신이나 제도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Apathism)이 확산되었다. 토마스 할리크, 『그리스도교의 오후』, 차윤석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23), 60.

3) 피터 버거, 『종교와 사회』, 이양구 옮김, (서울: 종로서적, 1981), 56-60; Mark Chaves, “Secularization as Declining Religious Authority,” *Social Forces* 72(1994, 3), 749-774.

4) Leonardo Blair, “Christians could lose majority status in America by 2045: study,” *Christian Post* (2022. 9. 13).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s-could-no-longer-be-the-majority-in-america-by-2045.html>(접속일: 2023. 11. 10).

5) 한국갤럽의 조사 인용(조사 기간: 2021. 3. 18-4. 7), 조사 대상: 제주를 제외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00명 면접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2.5%p.

모습을 띤다. 세대 코호트(cohort)에 따라, 남녀 성별에 따라 그리고 특별한 사회적 맥락과 사건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탈종교화 현상과 관련된 최근 연구의 흐름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탈종교성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분류하여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기성 종교제도에 소속되지 않거나, 조직으로서의 공동체를 중요시 하지 않는 ‘탈교회적’(unchurched), 혹은 ‘소속없는’(belief without belonging) 태도,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대하는 ‘반종교성’(anti-religiosity)의 형태, 문화에 배태된 비명시적 유사 종교성 등 다양한 탈종교적 형태가 병존하고 있다.⁶⁾ 둘째, 각 종단 조직마다 탈종교 혹은 탈교회화 현상과 관련된 요인과 특성을 찾는 흐름이다.⁷⁾ 셋째, 탈종교화의 구체적 대상에 대한 분석이다. 주로 여성과 청년 세대의 탈종교화 현상을 다루는데, 이러한 특정 종교집단이 처한 구조적문화적 맥락 안에서 사람들의 경험을 분석한다.⁸⁾

이러한 연구 성과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은 팬데믹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탈교회화 현상의 요인을 세속화의 연장선에서 분석하고, 시노달리타스 교회 개혁의 관점에서 탈교회화의 요인들에 대한 교회론적 대응을 추출한다. 근대의 세속화에 대한 서구 종교의 대응을 피터 버거(Peter L. Berger)는 세 가지 양태로 제시하였다.⁹⁾ 첫째, 연역적 대안이다. 종교 현실과 도전에 대해 종교조직이 처한 사회적 맥락과 흐름에 상대화하여 독립적 실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회적 도전에 대해 교회의 전통적 규범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종교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세속화의 환경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갖는다. 둘째, 환원적 대안이다. 현대사회의 세속적 문화규범과 집합의 식에 입각하여 전통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가 현대사회에서 보다 적절하게 ‘인정’(recognition) 받고 참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세속사회와 인식론적

-
- 6) 우혜란, 「신종교로서 무종교(Nonreligion)-최근 서구 학계의 무종교 연구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46(2022), 1-50; 정재영, 「한국인의 다양한 종교적 차원」, 『현상과 인식』 43(2019, 1), 135-162; 최현중, 「한국의 비종교인에 대한 연구」, 『종교와 문화』 37(2019), 1-24; 정규한, 「청년 세대의 다중 압력의 개인화와 종교성에 관한 고찰」, 『사회이론』 (2023, 봄/여름), 4.
- 7) 김동춘 편, 『탈교회화: 탈교회화 시대, 교회를 말한다』, (서울: 느헤미야, 2020); 정재영,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15); 김상인,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의 천주교회」, 『사목정보』, 98(2017. 3), 44-49; 최영균, 「뉴노멀 시대 가톨릭교회의 도전과 전망: 사사회하는 신앙과 율경하는 공동체」, 『종교와 사회』, 11(2023, 1), 1-38.
- 8) 송재룡, 「청년 신자들의 탈종교 현상에 대한 일 고찰」, 『탈종교화 시대의 종교경쟁과 혁신』, 김성건 외, (서울: 늘봄, 2020), 48-108; 박진화·오세일, 「탈종교화 시대, 청년여성과 종교」, 『종교와 사회』, 11(2020), 71-112.
- 9) 피터 버거, 『이단의 시대』, 서광선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1), 68-72.

부조화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종교전통의 순정성이 세속적 번역과 해석의 과정 안에서 왜곡되거나 사라질 위험이 있다. 셋째, 귀납적 대안이다. 이것은 근대적 맥락에 처한 인간의 종교 경험을 전통의 틀과 범위 안에서 해석하지는 것이다. 즉, 종교의 전통을 개인의 종교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로 삼자는 것이다. 종교전통을 신앙과 교회생활의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기 보다, 개방적이고 비권위적인 자세로 개인의 종교 경험을 선입견 없이 보고, 전통의 규범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전통의 선포나 확실성의 욕구를 약화시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버거는 전통적 권위를 부정시키는 세속화 사회에서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 전환이라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¹⁰⁾ 탈교회화의 도전에 대한 가톨릭의 교회적 대응은 시노달리타스 운동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전통과 규범의 강화(연역적)가 아니라, 교회구성원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대화하면서 전통의 틀 안에서 식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버거의 귀납적 방법과 친화성을 담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가톨릭교회의 탈종교/탈교회의 요인들을 ‘신앙의 사사회’, ‘세속화된 영성’ 그리고 ‘교회 내 불평등의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한다.¹¹⁾ 이어서 탈교회화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의 사회적 공헌’, ‘영적 자본의 강화’ 그리고 ‘환대의 영성’을 제시할 것이다.

1. 탈교회화 현상의 사회적 요인들

세속화와 관련된 탈종교화 현상의 거시적 요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식론적 세계관의 변화, 둘째, 사회 정치 구조의 변화 셋째, 윤리와 도덕의 관점 변화이다.¹²⁾ 이 세 가지는 탈종교화의 요인들을 유형화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세 가지가 중첩되어 실제 종교현상 안에서 드러난다. 이 장에서는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가톨릭교회의 탈교회화

10) Ibid., 71-72.

11) 논의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로 2023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실시한 ‘신자’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팬데믹 백서』)를 많이 활용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만19세 이상 전국 천주교신자/일반 국민이었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패널 기반 조사였고, 성/연령/지역별 모집단 비율 기반 비례할당법으로 표본추출하였다. 유효표본은 천주교 신자가 1,063명, 일반 국민이 1,000명이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 10일-1월 16일이었다.

12) 정규한, 「청년 세대의 다중 압력의 개인화와 종교성에 관한 고찰」, 7-8.

현상과 관련된 설명 요인을 세속화 현상의 거시적 틀 안에서 추출한다. 그것은 첫째, 신앙의 사사회, 둘째, 세속화된 영성의 유행, 셋째, 교회 내 불평등 인식이다.

1.1. 신앙의 사사회

제도와 조직을 기반으로 한 종교의 약화는 개인주의의 발전과 관계되며, 이때 초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사사회(privatization)의 경향을 띠게 된다. 종교의 사사회는 세속화 현상의 한 특징이다.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은 종교가 공동체의 가치나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전개되기보다 사적 영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면 제도적 전문화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종교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전문화되고, 그것은 결국 제도 종교의 가치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즉 제도종교는 쇠퇴하는데 반해 아무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개인적 신앙의 형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¹³⁾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래적 종교성이 제도종교 중심의 종교와 구분되며, 종교적 상징이나 초월적 가치들은 각 개인의 사사회 과정에서 결국 사적 영역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종교는 전통적인 사회 혹은 공동체의 영역 안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 헌신의 문제가 된다. 즉, 종교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선호가 존재하는 한 존속된다는 것이다.¹⁴⁾ 종교성은 개인에게 중요한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는 사적 의미 추구 차원의 종교성으로 귀결되며, 더 이상 공적 차원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된다. 탈교회 현상은 현대의 개인화가 가져온 종교의 개인화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관련된 의미해석에 대한 기존 제도종교의 권위가 예전만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¹⁵⁾

한국 가톨릭의 경우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공동체 보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이 종식되었음에도 많은 신자들이 교회로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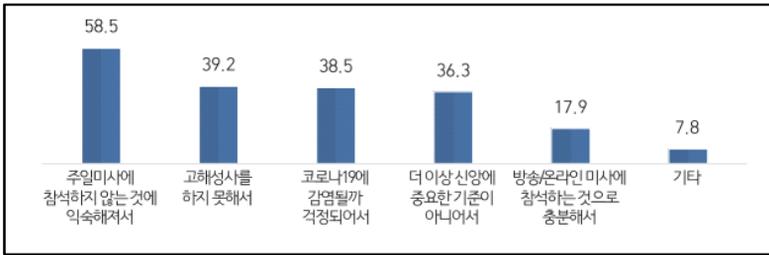
13) Thomas Luckmann, *The Invisible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67).

14) 박인기,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퇴출되었는가?」, 『종교와 사회』, 2(2010. 10), 111.

15) 최현중, 「탈교회화 시대의 종교」, 『탈종교화 시대의 종교 경쟁과 혁신』, 김성진 외, (서울: 늘봄, 2020), 114-115. 최근 20년간 한국의 종교인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무종교인 비율이 56.1%로 종교인 숫자를 앞섰고, 2005년 조사와 비교할 때 가톨릭교회 신자는 -22.5%p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이 종교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종교인 감소현상은 종교성이 제도종교 안에서 구현되는 것 보다 개인의 차원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종교인 추세와 관련된 통계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9/1/index.board?bmode=read&aSeq=358170 (접속일: 2023. 10. 28).

아오지 않았고, 공동체 중심의 교회전통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교회의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신자들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충실성은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둔화되고 있다. ‘제도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충성도 약화’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신앙행위로 간주되는 미사나 의례 참석의 이탈로 연결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최근 미사 참여 빈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매주 참석하던 신자들의 70.5%만이 지금도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물음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서’가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회성사를 하지 못해서’(38.2%)가 다음을 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걱정되어’(38.5%)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 → 대면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378/1063명)



(그림 1) 성당 대면 주일미사 불참 이유¹⁶⁾

이처럼 전통적인 교회의 가치와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석 교회를 향한 충성도와 공동체 의례를 통한 신앙심에 회의를 갖는 신자들은 제도종교로서의 교회가 나의 신앙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율과 주도적 선택에 의해 신앙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교회와 공동체의 의례가 사회화 과정 안에서 개인의 신앙체험과 윤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사회적 사실 내지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이제는 종교가 개인의 자율과 선택에 의해 소비되고, 체험되는 실재로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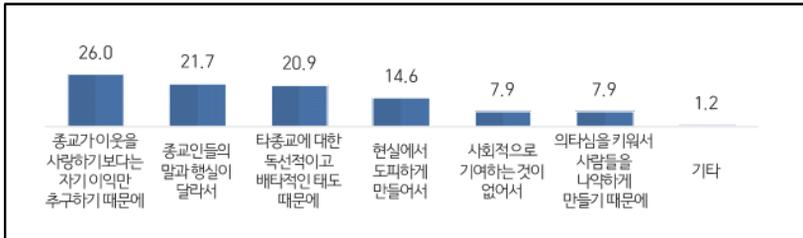
16) 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백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49. 이하 『사목백서』로 인용.

된 것이다.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4.0%였고,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25.4%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답변이 41.9%, 부정답변이 47.3%였다. 종교는 필요하지만 종교가 우리 사회 안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2>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말과 행실이 다르고’,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종교가 공동체에 행사하는 공적인(도덕적이고 통합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결핍이 우리 국민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응답자 →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25.4%, 일반국민 1000명)

단위: (%)



(그림 2)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¹⁷⁾

이와 같은 이미지 형성은 코로나 방역 기간에 일어난 종교 단체들의 집단감염으로 인한 국민적 비판의 인식이 큰 원인이었지만, 신앙이 사회의 공공성을 추구하기 보다, 개인의 안녕과 종교단체의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국민의 일반 인식에서 기인한다. 종교성은 더 이상 공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주관적 차원에 머문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교회나 기성 종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와 함께 탈종교화의 가속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17) 『사목백서』, 60.

1.2. 세속화된 영성

가톨릭교회가 직면한 탈교회화의 두 번째 요인은 세속화된 영성의 확산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주요 종단의 제도 종교들에게도 공통으로 해당한다.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세속적 영성 혹은 영성의 세속화는 다원주의적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버거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상황은 종교의 시장화를 초래했다. 즉, 종교조직들은 이제 시장의 행위자가 되었고, 종교전통은 소비재가 되었다.¹⁸⁾ 영성의 세속화는 앞서 말한 신앙의 사사회와 밀접히 관련된다. 탈종교가 초월적 존재와 가치에 대한 무관심과 믿음이 없는 것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제도종교에 대한 거리두기를 의미한다. 개인화된 신앙은 제도종교의 교의와 규범보다 종교적 가치와 목적에 대한 본질적 차원에 주목한다. 사사회된 종교가 주목하는 것은 전통적인 공동체의 정신과 의례가 아닌 영성이다. 영성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맞닿아 있으면서도, 반(反)그리스도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초월적 가치와 정신을 추구하는 유사종교의 의미로 변용되었다. 루프는 영성을 제도 종교의 교리와 의례 중심의 형태에 반하여 개인의 실존적 상황과 의미를 향한 인간적 탐구로 정의했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믿음의 담지자인 교회 공동체 자체보다 ‘영성’이 더 부각된다는 데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당시만 해도 근대성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판적 무신론과 종교적 무관심이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종교적 가치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탈교회화된 혹은 세속화된 종교적 지향성과 정신이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영성은 가장 교회적인 용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적 세속주의의 선두에서 있게 되었다.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주류 교파들은 영성에 대한 대중들의 갈증에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지 못했다. 영성은 분명 종교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성은 종교적 가치와 목적을 둘러싸고 제도종교와 경쟁하는 대립물로 간주되는 뉘앙스를 갖기도 한다. 실제로 가톨릭교회는 신앙의 행위자로서 개인이 삶 안에서 하느님과 관계 맺는 양태를 영성이라고 보며²⁰⁾,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억’(memoria), 파스칼의 ‘마음’, 옹의 ‘자

18) Peter Berger, *The Sacred Canopy*. (N.Y: Anchor Books, 1969), 138.

19) Wade Clark, Roof, “Religion and Spirituality: Toward an Integrated Analysis”,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Michele Dillon ed.,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03), 138, 최현중, 「탈교회화 시대의 종교」, 116에서 재인용.

야'(Selbst)의 차원과 가깝다. 즉,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영역이고, 예수님이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요한 3,5) 어머니의 자궁 같은 영역이다. 그러나 탈교회화는 교회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초월적 가치와 내면의 차원을 개인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고 호도한다. 즉, 영성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세속화되는 것이다.

평화와 구원을 자연주의적 가치 안에서 발견하려는 뉴에이지 운동, 개인의 종교적 욕구와 바람을 중시하는 일부 복음주의적 교회, 특정 교리와 신념을 집단적으로 교조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개인의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초교파 교회의 발흥은 세속화된 영성의 흐름을 보여준다. 원래 종교의 것이었던 영성이 이제는 종교의 영역도 세속의 영역도 아닌 독자적인 현상으로 관찰되고 있다.

세속화된 영성은 아시아 종교 내지 수행의 영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도 많다. 동아시아 종교의 선수행, 요가 명상은 20세기 중반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반감을 토대로 한 하위문화 운동,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로 계열화되는 문화 흐름을 타고 유행하게 되었다. 근대의 자율적 개인은 외부의 압력과 시선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의 향유를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온전한' 자기 것을 추구하고 진정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종교성 혹은 영성의 소비는 가장 탁월한 자기표현이자 자기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자아실현, 자기표현 그리고 창조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개념이 영성의 소비라는 종교 현상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세속화된 영성의 범위가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퍼지는 '힐링', '치유', '고민해결'과 관련된 콘텐츠는 미디어 종교의 얼굴로 대중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종교인을 통해 영적 마음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사제(secular priest)인 오은영의 상담 프로그램과 유재석의 힐링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위로를 받는 데 익숙해졌다. 이처럼 영성은 더 이상 종교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 세속화된 영성 혹은 미디어 종교는 힐링 담론을 통해 끊임없이 '종교적인 것'을 재생산하고 있다.

20) 토마시 할리크, 『그리스도교의 오후』, 차윤석 옮김, (예관: 분도, 2023), 221.

1.3. 교회 내 불평등

민주주의 세계에서 중요시되는 다원주의적 가치는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기에, 종교 조직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문화와 관습에 대한 거부감은 종종 종교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한다. 현대 사회에서 인권과 자유가 증대되며,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정투쟁’은 수평적 평등의 문화를 확산시켰다. 가톨릭교회의 시노달리타스 교회운동은 이러한 물결과 도전에 직면하여 교회의 전통과 사회적인 평등권의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적 쇄신을 모색하고 있다. 세상의 관점에서 체형되는 교회 내 불평등 혹은 차별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와 젠더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이 세우신 성사를 중심으로 하며, 이 성사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전통적 사제직무, 즉 가르치고, 이끌고, 성화하는 직무를 담지한 사제 중심의 교계 체도를 통해 전승되어 왔다. 이 교계체도의 문화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부정성이 바로 ‘성직주의’다. 가톨릭교회의 탈교회화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성직주의의 남용이다. 적지 않은 본당에서 사제들이 신자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명령의 분배자처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뜻만을 강요한다. 이러한 독단적 성직주의에 빠져 있는 사제를 교도권 혹은 전통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설명하려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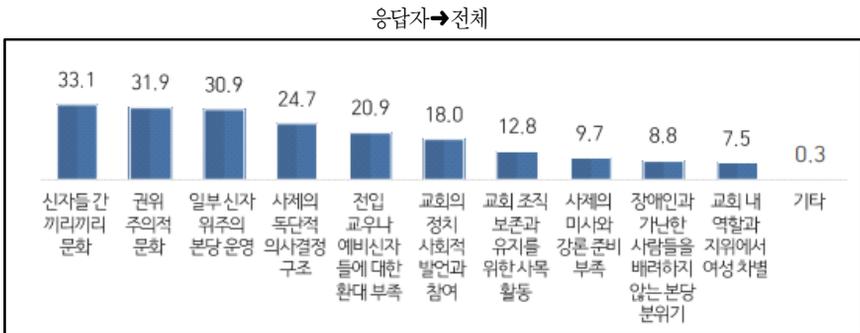
탈교회화를 부추기는 성직주의는 여러 양상을 띤다. 이것은 일종의 집단적 심성파도 같은데, 반드시 사제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성직주의는 교회 내 특정 인물과 집단의 권위주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즉,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오만한 우월감과 다른 이들과 구분된다는 자의식 과잉의 태도가 있다. 『아시아대륙회의최종문서』(2023.3.16.)는 성직주의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뜻을 지니지만 대체로 ‘행정적인 문제에서의 지문 부족’, ‘지배하려는 태도’, ‘권위를 지닌 이들 특히 사제들이 보이는 특권의식’,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권력행사’ 등으로 표현된다고 지적한다.²²⁾ 또한 성직주의

21) 오세일, 「시노달리타스 관점에서 본 권력: 교회와 민주주의」, 『시노달리타스와 한국천주교회』, 최영균 편, (화성: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23), 103; 주교대의원회 사무처, 『대륙별 단계 작업문서』 (Working Document for the Continental Stage), (2022, 10. 24), 58항. <https://synod.or.kr/synod114> (검색일: 2023. 11. 19).

22) 아시아주교회의 연합회,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아시아 대륙회의 최종문서』, (2023, 3, 16), 113항.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synodresources.org/wp-content/uploads/2023/03/ACAS-Final-Documents-16-Mar-2023.pdf>(접속일: 2023. 11. 20).

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 특성이나 심리적 미성숙, 혹은 더 구조적인 원인’이 있으며, ‘침묵과 먼책이라는 하위문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성직주의의 남용이 재정남용, 성학대, 양심의 파탄 그리고 교회 내 교우들에 대한 상처로 이어지며,²³⁾ 이것은 결국 탈교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각 개인이 존중받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며, 이를 위해 소수에 집중된 힘을 극복하고, 평등과 환대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림 3)은 천주교회에서 가장 변해야 하는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신자들 간 끼리끼리 문화’가 33.1%로 가장 높고, ‘권위주의문화’, ‘일부 신자위주의 본당운영’, ‘사제의 독단적 의사결정구조’ 순으로 높았다. 사람들은 개개인이 보다 존중받고, 신앙생활에 있어 평등한 문화적 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회의 일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과 그룹에게 그 리더십이 몰리는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



(그림 3) 한국천주교회에서 가장 변해야 하는 문화(종합순위)²⁴⁾

한국의 성직주의는 가톨릭교회 문화 안에 있는 특징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배태된 남성중심적인 가부장 문화와 유교적 엘리트 특권의식의 결절로 볼 수 있다. 물론 성직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것은 교회 안의 모든 불평등 체함과 관련된다. 교회 내 성직주의는 『교회현장』이 선언한 ‘하느님 백성’으

23) 박상훈, 「성직주의와 교회쇄신 「복음의 기쁨」은 어떻게 말하는가?」, 『가톨릭평론』, 41(2023, 가을), 132.
24) 『사목백서』, 56.

로서의 교회관에 대한 부정이다. 교회는 본래 수평적이다. 세례성사를 통해 신앙감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지위의 구분 없이 성스러운 교회의 예언직에 초대받았다.²⁵⁾ 다만 교회라는 사회 안에서 이차적이고 형식적으로 수직적인 모습을 띠기도 한다. 즉, 교황과 그와 일치한 주교단이 교회를 통치하지만, 그것은 교회 사명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에서의 통치이다.²⁶⁾

한편 불평등 현상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 형태는 젠더 불평등이다. 여성의 권리가 사회 각 부분에서 증진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가 지양되고 여성의 평등권 실현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내의 젠더 불평등 혹은 성폭력에 대한 체험들은 탈교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교회 안에서 이중적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여성은 교회 내에서 남성 대비 수적 우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 활동의 참여와 헌신 그리고 경제적 도움에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 내 주요 직책과 역할에서는 과소평가되어 왔다. 즉, 구조적으로 의사결정권과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기에 많은 여성 학자들은 교회 내에서 여성의 ‘동등 참여’(participatory parity)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²⁷⁾

조민아에 따르면 교회의 가부장 문화는 성직자에게 맞설 수 없는 권력을 부여하는 한편, 순종을 여성의 덕으로 가르쳐 여성들이 종속적인 지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교회 내 성 불평등 혹은 성폭력을 용인한다.²⁸⁾ 2021년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여성분과는 여성 신자 1940명²⁹⁾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정부교구 여성 신자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여성 신자들은 약 60%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어려움이 크다’(33.3%)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로 ‘가정에서의 살림과 같은 재생산 노동에 대한 부담’(43.8%)이 가장 높았고,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불

2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교회헌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12항.

26) John O'Malley, *What Happened at Vatican II?*,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2008), 73-74; 박상훈, 「성직주의와 교회쇄신」, 『복음의 기쁨은 어떻게 말하는가?』, 130-131.

27) 메리 데일리, 『교회의 제2의 성』, 황혜숙 역, (서울: 여성신문사, 1997), 72-73;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 『동등자 제자작: 비판적 여성론의 해방 교회론』, 김상분·황종렬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7), 148-150; 박진화·오세일, 「탈종교화 시대, 청년여성과 종교」, 『종교와 사회』, 11(2023), 77-78.

28) 조민아, 「교회 내 성폭력과 구약성서의 하느님」, 『가톨릭평론』, 39(2023, 봄), 175.

29) 응답자 연령대는 60대 36.8%, 50대 31.7%, 20-30대가 6.5%였다.

평등 문화와 정서’(31.6%), ‘유교적 문화와 정서’(25.1%), ‘취업, 승진, 정규직 등 사회적 기회 차별’(20.0%)이 꼽혔다. 그런데 “교회 운영이나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 신자들의 의견이 잘 전달되고 반영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63.6%가 동의하지 않았고, ‘교회에서 여성 신자들은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 받고 있지 않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9.4%에 달했다.³⁰⁾ 이는 여성 신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가부장 문화와 구조를 교회 안에서도 이중적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아시아 대륙 회의 최종 문서’에 따르면, 교회 내의 결정과 중요 사목에 대한 여성의 리더십 부재와 불평등의 원인으로 교회의 구조적 문제와 아시아 가부장 문화가 이중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아시아 교회에서 남성은 의사 결정을 하거나 모임을 이끌고, 여성은 그러한 결정을 단순히 이행하거나 남성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곤 한다. 이것은 여성 축성 생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³¹⁾

2. 가톨릭교회의 전략

버거는 탈종교화 현상에 대한 종교의 대응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서구 근대화의 도전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주로 전통의 재확인으로 각인되는 연역적 방법의 노선을 취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오늘날의 시노달리타스 운동은 그러한 연역적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반증하는 새로운 노선을 취한다. 필자의 눈엔 이 노선이 ‘귀납적 방법’에 가깝다. 이 방법의 기본적 생각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과 경험을 중시하고, 이것들을 교리나 도덕적 전통으로 수렴하는 동학으로 이해된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나온 명제와 규범의 뿌리가 종교적 경험으로부터 출현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교 경험의 결과로 얻는 경건한 자아의식은 집단적 형태 즉 공동체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³²⁾ 하르낙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서로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쇠신되었고, 서로 다른 인간 문화와 경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³³⁾

30) 문미정, 「천주교 여성 신자들은 사회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나」, 『가톨릭프레스』, (2021. 11. 25).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7188>(검색일: 2023. 10. 28).

31) 아시아주교회의 연합회,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아시아 대륙회의 최종문서』, 96항.

32) 피터 버거, 『이단의 시대』, 133-140.

이러한 맥락에서 탈교회화에 대한 기독교회의 전략은 시노달리타스 교회론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시노달리타스는 일방적으로 교회의 전통적 규범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원의 개별적 경험이 대화 안에서 모이고, 그것을 전통의 원천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신앙으로 새롭게 표현함을 추구한다. 이 글은 시노달리타스의 관점에서 탈교회화의 교회론적 대응을 ‘교회의 사회적 공헌’, ‘영성 자본의 강화’ 그리고 ‘환대의 영성’으로 설명한다.

2.1. 교회의 사회적 공헌

신앙의 사사회에 대한 주장은 비판적 반론을 받기도 한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종교가 사적 영역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속화로 인해 종교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대항 행위로서 ‘인정투쟁’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근대화와 더불어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 사적 영역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과거의 전망과 달리, 20세기 중반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행사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된다.³⁴⁾ 호세 카사노바가 지적하듯, 사사회되는 종교적 맥락에서 교회의 전략은 ‘종교의 탈사사회’(deprivatization of religion)여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나 시장에게 고유한 사회적 역할이 보장되는 것처럼, 대부분 종교는 사적인 주변부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면서 종교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 영역에서의 역할을 강조해왔다.³⁵⁾

종교의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 양자를 포괄하지만,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이해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다. 제임스는 종교가 개인들이 고독 가운데 초월적 존재와의 경험을 통해 겪게 되는 개인의 감정, 행위, 그리고 경험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제임스의 정의대로라면 종교는 개인이 신적인 존재나 초월적 존재를 경험하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문다. 이렇게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종교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간주된다.³⁶⁾ 이렇듯, 종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종교 지

33) 아돌프 폰 하르낙, 『기독교의 본질』, 오홍명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34) 종교적으로 세속화에 반대하는 반세속적 근본주의의 성장이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José Casanova,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 of Chicago Press, 1992), 3-10.

35) Ibid., 5-6.

도지나 대상이 갖고 있는 강렬한 카리스마에 의한 종교 경험을 유지·지속하고자 제도화와 관료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일상화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종교 경험은 분명 개인의 체험으로 시작되지만, 타자들의 인식에 의해 공유되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종교는 분명 사회적 성격을 담지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적인 것이지만, 같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과의 사회성을 담지하고, 종교적 가르침(사랑)을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안에서 실천하도록 개인에게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이 압력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덕성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실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행하도록 유도된다. 신앙의 사사회가 교회 공동체와의 유대를 약화시킴으로써 탈교회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교회 공동체가 개인의 애덕 실천 동기와 활동 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종교단체의 사회참여와 봉사가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봉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결과³⁷⁾가 있다. 개인 간의 신뢰가 사회 전체의 신뢰구조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 구조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단체의 사회참여는 비정부 영역에서의 사회적 자원이 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추동한다.³⁸⁾

한국인들 역시 천주교에 대해 사회적 공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4>는 ‘한국 교회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교회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가장 큰 기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과 보호’(42.3%)였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 노력’(32.9%), ‘독거노인, 빈곤층 등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도움’(27.7%) 순으로 높았다.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도움, 독거노인 등 가난한 사람을 돕는 활동영역에서 교회에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개신교와 불교 신자들,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기대를 하는

36) W.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Y: Penguin, 1982), 31; 박인기,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퇴출되었는가?」, 108-10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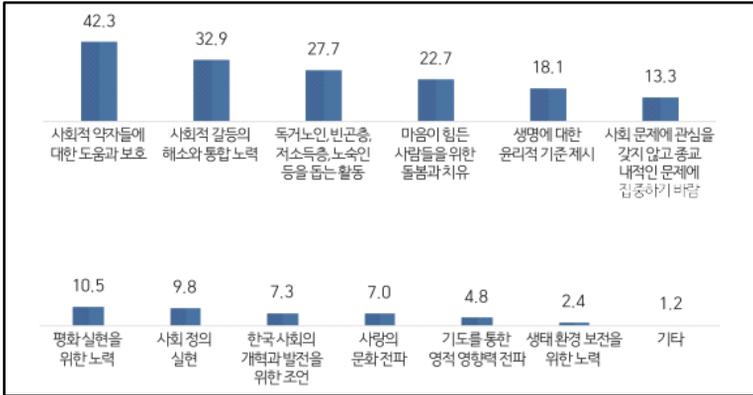
37) R.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Schuster, 2000); R. D. Putnam, and Lewis M. Feldstein,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N.Y: Simon&Schuster, 2003); Robert, Wuthnow, “Mobilizing Civic Engagement: Changing Impact of Religious Involvement”, in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ed. T. Skocpol and M. Fiorina, (Washington D.C & New York: Brookings Institution & Russel Sage Foundation, 1999), 331-336.

38) 한도현, 「시민사회 발전의 종교단체의 역할」, 『종교와 시민공동체』, 한도현 편, (서울: 백산, 2006), 27-28.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영역에서 천주교회에 대한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고,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응답자→전체

(단위: %)



(그림 4) 한국천주교회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일반국민대상³⁹⁾

시노달리타스의 관점에서도 교회의 공적 책무성은 교회쇄신의 으뜸 패로 간주되고 있다.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1회기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역정의 주인공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천명하고 있다.⁴⁰⁾ 종교성이 각인된 신앙의 행위가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전개되는 방식으로 그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복지와 배려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빈곤과 배제의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조나 개인, 기업 또는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불의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교회의 사회활동은 보편적 인권증진에 대한 열망과 다원화된 영역을 존중하는 자율성의 자세에 준거하여 보편적 공동선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생태적 회심의 영역에서 종교의 공적 역할과 책임이 있다.⁴¹⁾ 신앙의 사사회는 사회적 책무성이라는 공동체적 헌신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신앙인

39) 『사목백서』, 64.

40) XVI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Synthesis Report-First Session*, (2023. Oct, 4-29), 4항: https://www.synod.va/content/dam/synod/assembly/synthesis/english/2023.10.2.8.-ENG-Synthesis-Report_IMP.pdf(접속일: 2023. 12. 11).

개인의 종교심이 다양한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하고,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 신앙의 사회화에 대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영성자본의 강화

영성의 세속화로 인해 영성이라는 말이 가톨릭과는 상관없는 것이 된 것은 아니다. 영성은 교회를 포괄하고, 교회의 종교성을 측정하는 본질과 관계된다. 영성은 종교의 성향과 종교조직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앞장에서 말한 영성의 시장화 상황에서, 가톨릭교회는 교회의 영성 자본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탈교회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 스타크와 핑크는 ‘영성’ 혹은 ‘종교’를 ‘자본’개념으로 설명한다.⁴²⁾ 영적 자본은 특정 종교문화에 대한 ‘귀속감’과 ‘익숙함’으로 각인되는데, 이것은 한 종교를 진정 자신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감정적 친밀감을 의미한다. 종교를 자기 삶의 중요한 의미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 개인의 깊은 감정적 귀속감과 체험을 전제한다. 기도, 기적, 전례, 신비체험과 같은 신앙생활⁴³⁾이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적 자본을 형성하고, 특정 종교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한다. 영적 자본이 큰 사람일수록 그들의 종교성을 유지하려고 한다.⁴⁴⁾ 쉐킷에 따르면 영성 혹은 종교자본이 클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거나 귀의하는 일이 적다. 혹 개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그가 가졌던 영성자본을 가져가거나, 비슷한 종파를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요약하자면, 자신의 영성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충성과 귀속적 정체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성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교회의 사목적 쇄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노달리타스 교회는 개인과 다원성에 대한 존중 안에서 다양한 영적 관심과 카리스

41) 오세일, 「교계제도 설정 이후 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40(2012), 131.
42) Rodney Stark and Roger Finke, *Acts of Faith: Explor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2000).
43) 영성이 신앙보다 외연적으로 포괄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 신앙과 영성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신앙은 영성의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 안에서 이해한다.
44) Ibid., 2000, 121.
45) Daren E. Sherkat, “Tracking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Religious Affiliation and Patterns of Religions Mobility, 1973-1998”, *Social Forces*, 79(2001), 1459-1493.

마의 확산을 권장한다. 이것은 본당과 교회전통이 가르치는 전통적 영성의 주입이 아니라, 신자들의 다양한 실존적 상황과 영적 열망의 다양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능하다. 시노달 리타스 교회는 두 가지 차원의 영적 지향성을 갖는다.⁴⁶⁾ 첫째, 개인이 아닌 단체, 즉 공동체 중심의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다름을 환대하고 조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영성’으로 가야한다. 둘째,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은 일치의 공동체를 중시하지만, 다양한 영적 특이점들을 인정하고 축적해야 한다. 그리스도 영성은 동방과 서방의 영적 전통에 관해서든 또는 축성생활과 교회 운동들의 다양한 은사의 관점에서든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시노드 교회를 산다는 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살아가는 것이다. 즉, 다양한 영적 전통들 사이의 만남은 교회 내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고,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친교와 조화를 증진시키는 ‘창조적 훈련장’이 되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영적 쇄신 내지, 영성자본의 성장 방법에 대해 공간과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먼저 본당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정된 공동체 전례와 신심활동의 경계를 유연하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교황청 성직자성이 2020년 7월 20일 발표한 훈령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봉사하는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은 개인주의적인 문화, 인간 이동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한 생활 세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앙과 영성이 수행되는 공간이 본당 사목구를 넘어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말한다.⁴⁸⁾ 영성이 수행되는 공간의 확장과 다양화는 주로 디지털 온라인 공간과 영성자원의 선택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 의지의 성장과 관련된다. 특히 디지털 매체와 온라인 공간은 전통적인 신앙과 영성이 수행되는 공간을 탈경계화시켰다. 예컨대, 가톨릭교회의 본질적 중심 의례인 미사를 온라인을 매개로 체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⁹⁾ 온라인과 디지털 매체에 의한 의례에 대한 긍정적 생각은 지역과 조직에 기초한 전통적 본당 공동체의 신앙과 영성 생활이 사라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

46) 주교대의원회 사무처, 『대륙별 단계 작업문서』, 85항.

47) Ibid., 87항.

48) 교황청 성직자성 훈령,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20), 8항.

49) 방송/온라인 미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1.7%(매우 만족한다 14.5% + 약간 만족한다 47.2%)로 나타나 ‘불만족한다’(6.7% = 매우 불만족한다 0.8% + 약간 불만족한다 5.9%)는 응답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을 의미한다.⁵⁰⁾

이 점에서 온라인과 디지털 매체는 영성의 세속화로 인한 탈교회화의 도전 앞에서 다양한 영적 자원과 은사들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는 교회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과 디지털이라는 공간뿐 아니라, 개인들의 영적 경험에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이 교회에 의해 추동되어야 한다. 즉 속인주의적 방법에 준거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유연하게 재구성 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열려야 한다. 이러한 작은 공동체의 영적 다원성은 가톨릭교회의 전통의 식별 안에서 전체 교회로 수렴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과 혼란이 따를 수 있지만, 개인의 영적 열망에 대응하지 못하면 미신과 우상숭배가 범람함으로써 탈교회화는 더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공동체가 나누는 건전한 영성 생활 문화가 통속화된 영지주의 영성을 대체해야 한다.

한편, 영성자본의 강화를 위한 주체는 교도권과 평신도 양자를 포괄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도권은 책임과 식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실천하는데 헌신할뿐만 아니라, 신비주의 전통을 간직한 다양한 종교들과 대화하면서 교회의 영성적 자원을 그에 맞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⁵¹⁾ 그러나 신앙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평신도의 역할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평신도 영역에서 영성은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부흥했다. 교회와 세속 권력 사이의 갈등에서 성직자들이 파문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성사 거행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찾게 된 것이 개인 영성의 부흥이었다. 그 뒤 개신교의 종교개혁과 대중 신심은 신앙의 개인화에 기여했다. 전통적 종교제도의 권위, 영향력 신위가 위기의 정점에 달할 때 또한, 교회와 같은 조직형태의 종교에서 가장 쉽게 해방될 수 있는 영역이 영성이다.⁵²⁾ 영성은 교회가 독점할 수 없고, 교회의 규칙에 온전히 통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신학과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교회 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예컨대 1960년대 미국 대학의 복음주의 단체에서 역동적인 은사주의 운동(pentacostalism)이 일어났고, 이것은 성령쇄신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특히 이 운동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침체된 전통적 분당 공동체 생활에 신앙의 활력을 선사하였다. 지구화 시대에 이것은 아래로부터 발생한 영적 부흥의 좋은 사례로

50) 물론 온라인 미사가 미사의 성사적 효과를 대체할 수 없지만, 신자의 신앙감각의 유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음이 긍정되고 있다.

51) 토마스 할리크, 『그리스도교의 오후』, 232-233.

52) Ibid., 230.

평가되고 있다.⁵³⁾

2.3. 현대의 여성

교회 내 불평등 혹은 차별 경험은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교회 내 성원들이 형제적 친교 안에서 함께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앞장에서 언급한 신분, 역할 그리고 젠더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경험이다. 이것을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 성직주의라고 부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식인, 성직 엘리트 등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으로 교회의 길이 좌우될 때, 함께 가는 길로서의 교회가 문제에 봉착한다고 보았다.

이 문제가 바로 불평등이자 포괄적인 부정적 성직주의인 것이다.⁵⁴⁾ 실제 성직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평등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에서 다루고 있다. 예컨대 여성을 포함한 평신도의 교회직무 확대,⁵⁵⁾ 교구 사목에서 힘의 분산과 참여 확대, 심지어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회 내 인정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탈교회화의 현실에서 교회의 성직주의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면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감각을 어떤 방법으로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시노드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추구하는 성직주의 즉 차별과 불평등의 문화 극복은 세속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적 에토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의 본질적 가치인 ‘사랑’과 ‘자비’가 외적인 구조와 문화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되는가에 주목한다. 성직주의로 대변되는 교회 내 불평등이 탈교회화를 추동했다면, 제도과 문화의 개선을 통해 성직주의를 완화하는 것이 탈교회화를 멈추는 방법이 된다.

즉 교회의 본질인 자비와 사랑, 실제 생활에서는 현대의 문화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제도 내에 각인 될 때 탈교회화는 극복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형제적 사랑에 준거

53) Ibid., 226-229.

54) Antonio Spadaro, “Pope Francis in Conversation with the Editors of European Jesuit Journals”, *La Civiltà Cattolica*, (2022. June, 14) <https://www.laciviltacattolica.com/pope-francis-in-conversation-european-jesuit-journals/>(접속일: 2023. 11. 26).

55)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권의 보장과 존중이 제도 내에 수렴되기 시작했다. 2023년 4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과 평신도에 세계주교시노드의 투표권을 주었다. 현재 제16차 주교시노드에는 대의원 365명 중 54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배제됐던 여성의 목소리가 비로소 환대받기 시작한 것이다.

한 ‘환대’의 영성을 교회적 삶 안에 각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교회는 ‘환대의 영성’을 확산시킴으로써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인간 소외와 영적 세속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⁵⁶⁾ ‘환대’하는 영성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레비나스는 이 사랑의 계명에서 환대의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타자에 대한 환대의 행위를 의미하고, 타자에 대한 사랑은 ‘너 자신처럼’(like yourself)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결국 환대의 대상은 바로 자기가 된다.⁵⁷⁾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얼굴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웃에 대한 환대는 곧 나에게 하는 환대가 된다.⁵⁸⁾

그러나 타자에 대한 환대의 사명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나’와 ‘타자’가 포괄적으로 ‘우리’로 전환될 때 무분별한 집단의 익명성, 권리의 추상성, 또는 교회의 길에서 나 자신을 매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고유성을 보존해야 하는데, 내가 타자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창조성’이며 ‘나의 인간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⁵⁹⁾

한편 환대의 영성은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는 신앙의 가치이고,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서 환대는 ‘경청’과 ‘관용’(포용)의 가치와 동일하게 계열화 된다.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의 『대륙별 단계 작업문서』의 부제는 “너의 천막터를 넓혀라”(이사 54,2)로 각인되었다. 교회의 길은 더욱 큰 포용을 향한 여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여정은 ‘경청’에서 시작하여, 교회의 태도와 구조적 차원에서의 회심에 준거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변방’을 인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경청은 타자를 그 고유한 주제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때 타자는 자신이 판단되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환대받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56) 교황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57) Emmanuel Lévinas, *Of God Who Comes to Mind*, Trans. Bettina Bergo, (Paloalto: Stanford Univ. Press, 1998), 90.

58) M. Jamie Ferreira, “‘Total Altruism’ In Levinas’s Ethics of the Welcome”, *Journal of Religion Ethics*, 29(2002, 3), 467-468.

59) XVI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Instrumentum Laboris. For the First Session*, (2023. Oct), 24-26항, <https://synod.or.kr/synod041/4421>(접속일: 2023. 12. 11).

나가는 말

후기 세속주의(Post-secularism)의 맥락에서 종교는 두 가지 이중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 전통규범의 약화 내지 탈종교화이고, 다른 하나는 비제도권 종교와 세속화된 영성의 유행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속없는 교회(non denominational)의 부흥과 뉴에이지를 비롯한 다원주의적 영성 콘텐츠의 소비 증가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압축적인 근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속화된 한국적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세계화와 함께 가치의 다원화와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주체적 해방을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의 세속화와 가톨릭교회의 신자 이탈은 완만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팬데믹의 확산은 이러한 탈종교화를 급격하게 가속화했다. 팬데믹은 탈종교화를 보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현재 상황'(staus quo)의 위기와 쇠신적 성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가톨릭교회 역시 한국의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아노미에 맞서 사회통합의 중요 행위자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이라는 지점에서 위기의 징조를 감지하고 있다. 가톨릭교회 역시 팬데믹 이후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교회의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글은 가톨릭교회의 탈교회화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는 교회론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탈교회화 현상 역시 거시적으로 종교사회학 이론인 '세속화' 현상의 틀에서 관찰된다. 탈교회화의 주요 요인에는 신앙의 사사회, 영성의 세속화 그리고 평등권의 탈구경험(dislocated experience)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다중적 압력요인으로 서로 작동하여 탈교회화를 추동하고 있다. 이 글은 탈교회화 위기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쇠신운동인 시노달리타스 교회운동의 맥락에서 탈교회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시노달리타스는 개인의 종교경험을 전통의 틀 안으로 수렴하여 교회의 영성과 공동체 생활을 현대의 종교적 환경에 정합적으로 맥락화하는 교회적 쇠신운동을 일컫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제기된 세 가지 탈교회화 현상과 관련된 사목적 영성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교회의 사회적 공헌활동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 시노드 교회는 신앙의 사사회에 맞선 공동체적 역량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교회의 사명을 사회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사회의 공공영역에 대한 헌신은 공동체의 연대와

교회적 가치 양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회적 열정이다.

둘째, 영성자본의 강화에 주목한다. 교리를 넘어서 다양한 대중신심과 영적 자원들이 개인들에 특화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개인들의 영적 다원성과 사명들이 결절되는 실존적 공간이 교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영적 전통의 교회적 식별과 포용의 맥락에서 영성자본이 강화될 수 있을 때, 세속화된 영성의 도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대의 영성을 제도적이고 문화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다. 성직주의로 대변되는 교회 내 불평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현대의 영성이다. 현대는 교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시노드 교회는 세례성사로 받은 소명을 통하여 성적으로 부름받은 모든 개인 여성과 남성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첫 번째 복음 선편자인 성직자와 교리 교사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단순함과 활력, 젊은이들의 열정과 질문, 노인들의 꿈과 지혜와 기억, 이 모든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평신도 직무를 촉진하고 식별과 의사결정구조에 관여하고자 사람들의 목소리를 확대해야 한다.⁶⁰⁾

특히 현대는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는데, 교회 사명의 대상범주는 ‘가난한 사람’이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의 범위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버림받은 이들(예컨대 거리의 아이와 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이혼한 이, 재혼한 이, 한부모, 해체된 가정, 장애인, 재소자, 성 소수자, 노인, 약물 의존자, 성매매 종사자 등이 포용과 현대의 영역에서 의미있는 사목적 돌봄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다.⁶¹⁾ 교회의 이미지가 ‘죄’를 묻고, ‘선’을 추앙하는 판사였다면, 이제 여러 방면에서 많은 이들이 ‘천막’(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집사의 이미지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 시노드 교회의 기조이자 탈교회화에 대한 교회적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60)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서한』, (2023. 10. 25), <https://synod.or.kr/synod074>(접속일: 2023. 11. 29).

61) 아시아주교회의 연합회,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아시아 대륙회의 최종문서』, 169항. 탈종교화의 도전 앞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는 가톨릭교회에게 되풀이 되지만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오늘날 상처 입어 종교적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데 이는 정치, 경제, 심지어 종교적 맥락이 고려되어 실행된다. 세계 곳곳에서 국내의 분쟁과 기회의 막탈로 소외된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성경에서 예수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예수는 인간 마음에 있는 가장 선한 부분을 믿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사랑에 머무르도록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명예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두려울 뿐이다.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56-71항.

참고문헌

교회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 교황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 교황청 성직자성 훈령,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 주교대의원회 사무처, 『대륙별 단계 작업문서(Working Document for the Continental Stage)』, 2022. <https://synod.or.kr/synod114>(검색일: 2023. 11. 19).
- 아시아주교회의 연합회,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아시아 대륙회의 최종문서』, 2023, <chrome-extension://efaidnbmninnibpcapjpeglclefindmk> <https://www.synodresources.org/wp-content/uploads/2023/03/ACAS-Final-Document-16-Mar-2023.pdf>(접속일: 2023. 11. 20).
- XVI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Synthesis Report-First Session, 2023. https://www.synod.va/content/dam/synod/assembly/synthesis/english/2023.10.28.-ENG-Synthesis-Report_IMP.pdf(접속일: 2023. 12. 11).
- XVI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Instrumentum Laboris. For the First Session, 2023. <https://synod.or.kr/synod041/4421>(접속일: 2023. 12. 11).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서한』, 2023. <https://synod.or.kr/synod074>(접속일: 2023. 11. 29).

일반문헌

- 김동춘 편, 『탈교회화: 탈교회화 시대, 교회를 말하다』, 서울: 느헤미야, 2020.
- 김상인,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의 천주교회」, 『사목정보』, 98(2017. 3), 44-49.
- 데일리, 메리(Daly, Mary), 『교회의 제2의 성』, 황혜숙 역, 서울: 여성신문사, 1997.
- 문미정, 「천주교 여성 신자들은 사회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나」, 『가톨릭프레스』, (2021. 11. 25).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7188>(접속일: 2023. 10. 28).
- 박인기,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퇴출되었는가?」, 『종교와 사회』, 2(2010. 10), 103-128.
- 박상훈, 「성직주의와 교회쇄신 「복음의 기쁨」 은 어떻게 말하는가?」, 『가톨릭평론』, 41 (2023, 가을), 120-132.

- 버거, 피터(Berger, Peter), 『종교와 사회』, 이양구 옮김, 서울: 종로서적, 1981.
- _____, 『이단의 시대』, 서광선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1.
- 오세일, 「교계제도 설정 이후 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40(2012), 99-141.
- _____, 「시노달리타스 관점에서 본 권력: 교회와 민주주의」, 『시노달리타스와 한국천주교회』, 최영균 편, 화성: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2023, 98-127.
- 박진희·오세일, 「탈종교화 시대, 청년여성과의 종교」, 『종교와 사회』, 11(2023), 71-112.
- 정재영,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15.
- _____, 「한국인의 다양한 종교적 차원」, 『현상과인식』, 43(2019, 1), 135-162.
- 조민아, 「교회 내 성폭력과 구약성서의 하느님」, 『가톨릭평론』, 39(2023, 봄), 173-182.
- 정규한, 「청년 세대의 다중 압력의 개인화와 종교성에 관한 고찰」, 『사회이론』, (2023, 봄/여름), 1-48.
- 최영균, 「뉴노멀 시대 가톨릭교회의 도전과 전망: 사사화 하는 신앙과 월경하는 공동체」, 『종교와 사회』, 11(2023, 1), 1-38.
- 최현종, 「한국의 비종교인에 대한 연구」, 『종교와 문화』, 37(2019), 1-24
- _____, 「탈교회화 시대의 종교」, 『탈종교화 시대의 종교 경쟁과 혁신』, 김성건 외, 서울: 늘봄, 2020, 110-130.
- 피오렌치 쉬슬러 엘리자베스(Fiorenza S, Elizabeth), 『동등자 제자적: 비판적 여성론의 해방교회론』, 김상분·황종렬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7.
- 폰 하르낙, 아돌프, 『기독교의 본질』, 오홍명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할리크, 토마시(Halik, Thomasi), 『그리스도교의 오후』, 차윤석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23.
- 한도현, 「시민사회 발전의 종교단체의 역할」, 『종교와 시민공동체』, 한도현 편, 서울: 백산, 2006, 17-52.
- Berger, Peter, *The Sacred Canopy*, N.Y: Anchor Books, 1969.
- Blair, Leonardo, “Christians could lose majority status in America by 2045: study,” *ChristianPost*(2022. 9. 13).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s-could-no-longer-be-the-majority-in-america-by-2045.html>(접속일: 2023. 11. 10).
- Casanova, José,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 of Chicago Press, 1992.

- Chaves, Mark, "Secularization as Declining Religious Authority," *Social Forces*, 72(1994, 3), 749-774.
- Ferreira, M. Jamie, "'Total Altruism' In Levinas's Ethics of the Welcome", *Journal of Religion Ethics*, 29(2002, 3), 443-470.
- O'Malley, John, *What Happened at Vatican II?*,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2008.
- Lévinas, Emmanuel, *Of God Who Comes to Mind*, Trans. Bettina Bergo, Paloalto: Stanford Univ. Press, 1998.
- Luckmann, Thomas, *The Invisible Religion*, New York: Macmillian, 1967.
- Putnam, R.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Schuster, 2000.
- Putnam, R. D. and Feldstein, Lewis M.,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N.Y: Simon&Schuster, 2003.
- Roof, Wade Clark, "Religion and Spirituality: Toward an Integrated Analysis",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ed., Michele Dillon,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03.
- Sherkat, Daren E., "Tracking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Religious Affiliation and Patterns of Religious Mobility, 1973-1998", *Social Forces*, 79(2001), 459-493.
- Stark, Rodney and Finke, Roger, *Acts of Faith: Explor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2000.
- Spadaro, Antonio, "Pope Francis in Conversation with the Editors of European Jesuit Journals", *La Civiltà Cattolica*, (2022. June, 14). <https://www.laciviltacattolica.com/pope-francis-in-conversation-european-jesuit-journals/>(접속일: 2023. 11. 26).
-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Y: Penguin, 1982.
- Wuthnow, Robert, "Mobilizing Civic Engagement: Changing Impact of Religious Involvement", in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ed., Skocpol, T and Fiorenza, M., Washington D.C & New York: Brookings Institution &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탈교회화 현상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전략

최영균

이 연구는 한국 교회의 성장 정체와 탈교회화 현상의 요인을 분석하고 가톨릭교회의 사목적 대응을 모색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탈교회화 현상은 세속화 현상이라는 문화적 맥락과 팬데믹이라는 자연환경 요소의 결합 안에서 관찰된다. 탈종교화의 도전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쇄신과 대응은 시노달리타스 교회운동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전통과 규범의 일방적 주입과 강조가 아니라, 교회구성원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대화하면서 전통의 틀 안에서 식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특히 근대성의 도전에 대한 전통종교의 대응과 관련된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의 ‘귀납적 대응’ 이론과 친화성을 공유한다.

가톨릭교회의 탈교회화의 주요 요인에는 신앙의 사사화, 영성의 세속화 그리고 평등권의 탈구경험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다중적 압력요인으로 서로 교차하며 탈교회화를 추동하고 있다. 이러한 탈교회화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대응을 시노달리타스 교회운동의 맥락에서 모색하였다. 첫째, 교회의 사회적 공헌활동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 시노드 교회는 신앙의 사사화에 맞선 공동체적 역량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교회의 사명을 사회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둘째, 영성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세속화된 영성들이 경쟁하는 공간에서, 교회는 개인들의 영적 요구와 다원성이 표출되는 실존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대의 영성을 제도적이고 문화적으로 뿌리내리기이다. 성직주의로 대변되는 교회 내 불평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자에 대한 경청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의 영성이다. 현대를 통해 교회는 보다 평등한 형제적 친교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제어: 탈교회화, 세속화, 시노달리타스, 신앙의 사사화, 영성자본

The Catholic Church's Strategies for Dechurching

Choi, Young-Kyun

This study delves into the stagnation of growth and the phenomenon of dechurching within the Korean Church, specifically focusing on identifying the contributing factors and exploring the Catholic Church's pastoral response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 trend towards dechurching is observed against a backdrop of cultural secularization and the impacts of the pandemic. The Catholic Church is addressing the challenges posed by dechurching through the lens of the Synodal Church movement. This approach moves away from the unilateral imposition of tradition and norms, opting instead for a methodology that widely embraces the experiences of church members, engaging in dialogue, and discerning within the framework of tradition. This strategy aligns with Peter Berger's theory of 'inductive response', which examines the engagement of traditional religions with societal changes, particularly the challenges brought about by modernity.

The princip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atholic Church's dechurching include the privatization of faith, the secularization of spirituality, and experiences of disengagement concerning ecclesiastical authority and communal rights. These elements act as multifaceted pressures that intersect and collectively propel the phenomenon of dechurching. The response of the Catholic Church to these challenges is sought within the Synodal Church movement, emphasizing three key areas for action. Firstly,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church's social engagement activities, positioning the church as a community capable of strengthening collective capacity and solidarity in opposition to

the privatization of faith. Secondly, it is crucial to bolster spiritual capital; the church must forge spaces where the spiritual needs and diversity of individuals are acknowledged and met amidst competing secular spiritualities. Lastly,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embedding of a spirituality of hospitality is imperative. Overcoming the inequalities symbolized by clericalism requires a foundational shift towards a spirituality that prioritizes listening and openness to the other. Through hospitality, the church can more effectively fulfill its mission to the impoverished within a more egalitarian and fraternal community framework.

Key Words: Dechurching, Secularization, Synodality, Privatization of Faith, Spiritual Capital

논문 투고일	2024년 3월 4일
논문 수정일	2024년 4월 8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4년 4월 1일
